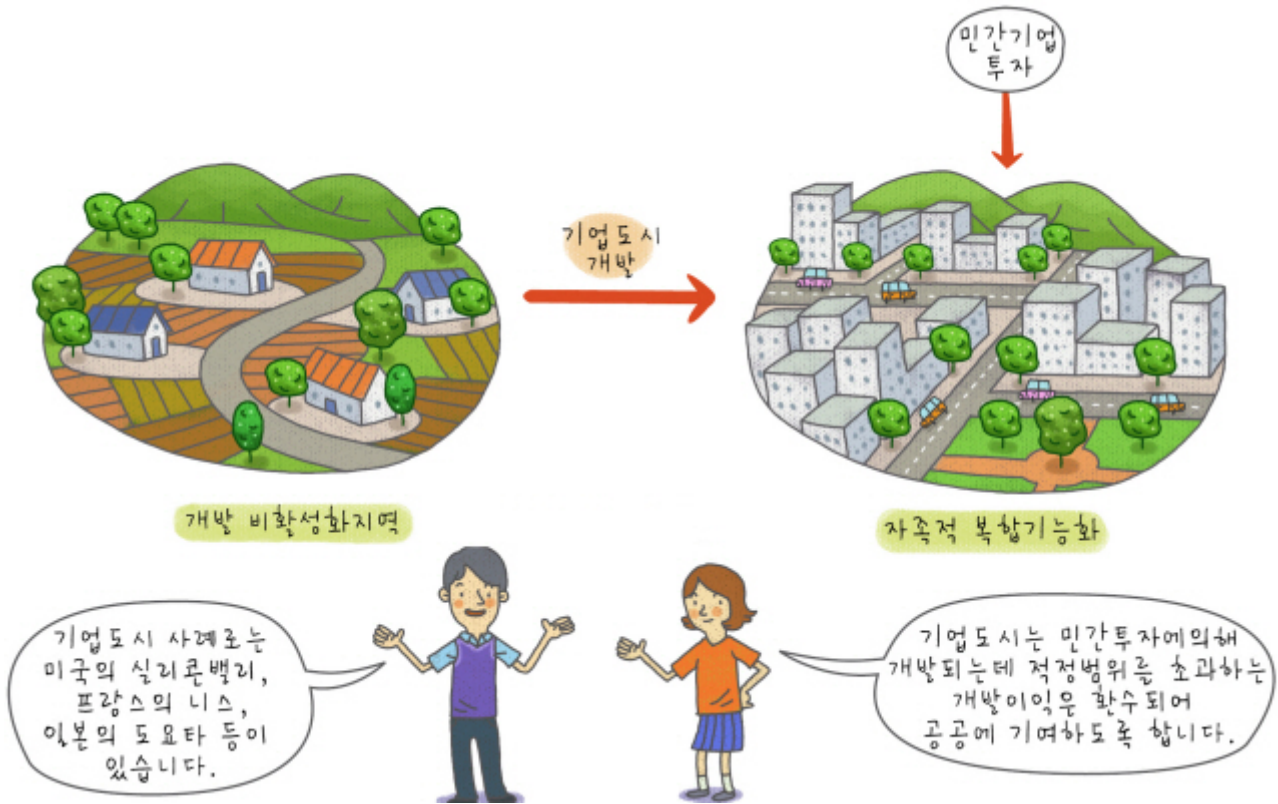


기업도시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



용어설명

기업도시는 개발이 활성화하지 않은 지역에 민간기업이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역에 직접 개발하는 도시이며, 산업·연구·관광 등의 주된 기능과 함께 정주에 필요한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로 조성된다. 이러한 기업도시는 기업이 지닌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며 미국의 실리콘밸리, 일본 도요타시,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범도시를 선정한 바 있다. 또한 민간기업 등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 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도시의 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으로서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도로 등 간선시설과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의 공공편익시설에 재투자하거나 조성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게 된다.

관련법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동법시행령

관련용어

혁신도시

참고

-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From:
<https://www.conschoool.co.kr/> - DB World

Permanent link:
<https://www.conschoool.co.kr/%EA%B1%B4%EC%84%A4%EC%9A%A9%EC%96%B4/%EA%B8%B0%EC%97%85%EB%8F%84%EC%8B%9C>

Last update: 2016/04/07 03:58

